

## 귀국자를 통해서 본 북한사회\*

박종철 (경상대학교 교수)

**본**고는 북한 내의 인구구성에서 소수자인 귀국자를 통하여 북한 사회의 단면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 투사(만주파),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 월북자 등 귀국자가 많아서, 북한의 역사는 '귀국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은 제1위 원장의 가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부는 만주에서 활약하던 귀국자 김일성이었고 모친은 고영희로 재일조선인 귀국자 출신이다.

**한**국전쟁 이후 1953년 북한 인구는 급감해서 약 8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의 전후 복구에 공헌하였지만, 1958년 철군하였다. 이 무렵 북한사회는 인력부족에 대비하여, 사회주의 각국의 협력 하에 중국, 소련, 동유럽, 일본 등에서 조선인들의 귀국 문제가 대두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북한에서는 재외 조선인 귀국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이를 계기로 소련, 중국, 일본 등지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 양육하던 전쟁고아 및 외국인 부인까지도 북한에 대거 유입되었다.

**귀**국자들은 정치적으로 동요계급으로 차별의 대상이었지만, 북한주민보다 우월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했고, 후손들의 영향력도 막강했다. 재중·재일 조선인 귀국자 및 화교들은 북한에서의 소수자(Minority)로써 사회문화의 역동성에 공헌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일본의 북한 제재에 따라서 재일조선인 귀국자는 몰락했다. 중국연고자의 경우,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_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12. 3) 발표자료임.

## 목 차

1. 서론
2. 북한에서 노동력 부족과 재외동포 귀국사업
3. 재중조선인과 재일조선인, 그리고 화교의 북한 이주와 사회문화적 삶
  - 가. 재중조선인의 귀국
    - 1950년대 중반-1964년
  - 나. 화교 1950년대 말-문화대혁명 시기
  - 다. 재일조선인의 귀국자의 귀국 배경 1959년-1962년
  - 라.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삶
    - 북한주민과의 상호 배타적 관계
4. 소수자로서 귀국자의 경제·사회문화적 역할
  - 가. 재일조선인 귀국자와 친척원조
  - 나.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연고자의 부상
  - 다. 개혁개방 이후 화교의 경제력 부상
  - 라. 고영희의 삶과 김정은의 성장과정
5. 종합평가

## 1. 서론

- 본고는 북한에서 인구이주를 중심으로 냉전 시기 북한에서의 사회문화적 삶에 대한 고찰임.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 투사,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 등 북한의 역사는 ‘귀국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북한 지도부의 김일성-정일-정은 가문, 성혜림, 고영희 및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등은 상당수가 월북자, 귀국자 혹은 전쟁고아 자격으로 해외 경험이 풍부함.
- 한국전쟁 이후 잔류한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의 전후 복구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침.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 철수를 둘러싸고 전후 복구 및 재건에 매우 큰 곤란을 겪음. 따라서 숙련공 부족문제가 대두하였음.
- 중국, 소련, 동유럽, 일본 등에서 조선인들의 귀국사업전개
  - 1960년대 초 북한 인구가 850만 명이 넘는 수치에서 귀국자가 자료상 35만 정도로 추정됨.
  - 이들은 중국과 일본 관계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동요계급으로 분류됨.
  - 재일·재중 귀국자는 북한주민보다 우월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졌으며 후손들의 영향력도 막강했음.
  - 조선인 귀국은 1950년 후반 이후 북한 사회의 역동성을 제고: 귀국자는 북한에서의 소수자(Minority)로써 북한사회의 역동성에 공헌함.
  - 일본, 중국, 소련 등에서 유입된 귀국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 사람의 삶은 획일적으로 볼 수 없음.
  -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이를 계기로 소련·중국·일본 등지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뿐만 아니라 중국, 몽고, 그리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양육하던 전쟁고아 및 외국인 부인까지도 북한에 대거 유입
- 귀국자 관련 거시적 통계
  -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조선인과 일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인원은 총 93,339명(일본인 남성 배우자 4명)
  - 소련에서 건너간 조선인은 약 6만 명 정도
  - 중국에서 건너간 조선인은 약 20만 명 정도<sup>1)</sup>

## 2. 북한의 노동력 부족과 재외동포 귀국사업

-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의 원인
  - 중국인민지원군의 중국철군은 1956년 8월의 헝가리, 북한, 폴란드 등의 사회주의 각국의 위기를 배경으로 함.
  - 중소갈등초기 국면에 북중갈등의 봉합하기 위하여 김일성의 요구에 의하여 마오쩌둥이 수용함.<sup>2)</sup>
  
-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국제관계 등의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본고에서는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조명하면 다음과 같음.
  - 북한지도부는 군사부문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면서 경제재건에 문제가 발생함.
  - 전후 복구를 위한 인력 부족 현상이 빚어짐.<sup>3)</sup>
  - 암시장에서 중국인민지원군 물품 거래가 감소
  - 천리마운동과 재외동포귀국사업을 전개
  
- 1950년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귀국자는 약 35만 명 정도
  - 북한 해방 이후 인력, 특히 숙련공이 부족했는데, 소련, 몽고, 중국,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에서 양육된 전쟁고아들은 직업학교에서 기술 교육을 받음. 한국전쟁 기간 중국 측에서 양육하던 전쟁고아와 중국 내의 실습생 등을 귀국시키기로 합의함.
  -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조선인(일본인 배우자 포함)은 북송사업 초기단계인 1960~62년도에 가장 많음. 1959년 12월 16일 귀국사업이 개시된 때로부터 1962년 3월 31일까지 89회에 걸쳐 1만 9,000세대의 7만 5,057명의 재일동포(4명의 남성을 포함한 일본인 배우자 포함)가 귀국함.<sup>4)</sup>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국제관계 등의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3. 재중·재일조선인과 화교의 북한 이주와 사회문화적 삶

### 가. 재중조선인의 귀국 1950년대 중반-1964년

- 역사적 중조 간 접경 교류
  - 조선과 청나라 시대에도 접경지역의 민간차원의 주민, 물류(밀수)의

**중국인민지원군****철군으로 심각한****노동력 부족에 빠진****북한 정부는 중국****조선족들이 북한에****가서 경제건설을****지원해 달라는 의견을****중국정부에 건의함**

교류는 활발

- 항일전쟁, 국공내전, 한국전쟁 등의 시기 접경지역 주민간의 이주가 활발
- 한국전쟁 이후 지방정부간 혹은 양국의 회사 간 접경무역협약으로 활발한 교역
-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동북지방에는 조선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함.
- 북·중 국경무역은 문화대혁명 직전까지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음. 1954년 국경무역총액이 인민폐 13만 위엔에서 1965년에는 286만 위엔으로 10년 사이 약 20배 이상 증가함.<sup>5)</sup>
- “당시에는 국경에 대한 경비가 지금처럼 삼엄하지 않았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국경에 대한 인식 또한 희박하였다.”<sup>6)</sup>

○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빠진 북한 정부는 중국 조선족들이 북한에 가서 경제건설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을 중국정부에 건의함.

- 중국정부는 1958년경부터 조선족 일부를 수차례에 걸쳐 아예 북한으로 이주시킴.
- 푸자노프기에 의하면, “김일성은 중국인민지원군 철수로 말미암아 잃게 될 노동력의 일부만이라도 보충하려고 중국 동북부에 사는 조선인의 ‘고국 귀국’을 장려해달라고 중국에 수차례 부탁했다고 한다. 1958년 말쯤 김일성이 중국을 설득하는데 성공해 4만 명 정도의 조선인 귀국을 약속받았다.”<sup>7)</sup> 북한의 재중조선인 귀국사업으로 인하여 10만여 명의 조선인이 귀국했다.”
- 1959년 1월에 중국은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등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북한의 건설에 참여하라고 호소함.<sup>8)</sup>
- 중국외교부 당안에 관련 자료가 비교적 풍부함. 중국 정부와 각성 정부는 1959년 4월 말에 거의 준비가 완료. 이 시기 전체 1만 297가구, 총 5만 2,014명의 조선족이 북한으로 귀국. 이 중 3분의 1은 황해남도과 황해북도, 평안남도의 농촌에 이주시켰고, 3분의 2는 공장에 배치함.<sup>9)</sup>
- 조선족 학자의 증언에 따르면 장춘시에 조선인귀국이 하달된 것은 1959년이며 당시 인민공사의 절반가량이 지원함.
- 헤이룽장성 정부가 1959년 2월 5일 하달한 문건 ‘중국 정부가 조선에 지원하는 건에 대한 문건’을 발표함. 중앙 국무원에서 헤이룽장성에 배분한 인수는 2천호 8천명 좌우, 동북 3성 3만 명 이하일 것으로 추정됨. 헤이룽장성에서 각 인민공사에 하달, 절반정도가 지원을 했음. 농민뿐만 아니라 지식인도 이주함.<sup>10)</sup>

- 이 시기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조선족 출신과 인터뷰한 결과, 개인의 기술력에 따라 배치를 했다고 함.
  - 귀국한 재중조선인들은 기술이 있으면 도시에 배치되고 아니면 농촌에 배치되어 상당히 곤란한 생활을 했다고 함.
  - 당시 북한은 지역에 따른 경제적 편차가 심했음. 재중귀국자 중에 중국 동북지역보다 경제와 배급이 못했다고 증언하는 경우도 많음.

## 나. 화교 1950년대 말-문화대혁명 시기

- 1950년대 말, 북한의 귀국사업을 통해 접경지역의 한족 및 중국인민지원군의 일부도 북한으로 이주
  - 역사적으로 한반도에는 화교가 존재, 조선말기 산동지역 사람이 조선에 대거 진출함.
  - 해방 전 일제 만주침략의 관문에 자리 잡은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시의 경우, 1935년 신의주시 인구는 5만 4310명으로 그 중 조선인이 71.7%, 일본인이 15.3%, 중국인을 기본으로 하는 외국인이 13%를 차지함.<sup>11)</sup>
  - 신중국 건국 후 한국전쟁, 1950년 후반의 반우파투쟁과 1960년대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북한에 이주한 화교가 급증함.<sup>12)</sup>
- 중국 단둥주민(한족)에 대한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북한화교 중에는 중국 국공내전 중 이주해 온 한족(漢族)도 있으나 한국전쟁 때 중국 인민지원군으로 참전하였다가 전후 북한에 그대로 조선여자와 결혼하여 정착하거나, 중국으로 귀국 후 다시 북한으로 간 사례도 적지 않음. 북한 당국은 철군하는 중국인민지원군 병사를 대상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선전활동을 펼침. 귀국한 중국인민지원군 일부(한족, 조선족)는 북한으로 재입북
  - 한국전쟁 후 북한에서 물자가 크게 부족하던 시기 중국인민지원군의 물자가 암시장을 통해 유통되면서 화교가 암거래의 중계자로 등장함. 당시 신의주의 채하시장만 해도 중국인들로 붐볐음.<sup>13)</sup>
  - “북한에서 화교의 개념은 모호하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여자와 결혼하여 남은 경우는 ‘외국인증’을 발급했다. 1950년대 반우파투쟁, 196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 조선으로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망명한 한족들은 파란색의 ‘무국적증’을 발급했다. 조선인민지원군 출신의 한족들은 조선어를 배우지 않고, 외롭게 살다 죽었다. 또한 가난한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다. 1970년대 말 화국봉 시기에 북중관계가

**신중국 건국 후  
한국전쟁, 1950년  
후반의 반우파투쟁과  
1960년대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북한에 이주한  
화교가 급증함**

**북한 화교는 대약진이나  
문화대혁명 등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혼란할 때 정치적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북한으로 이주함.  
문화대혁명 시기  
북중관계 악화에  
따라서 북한에서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음**

좋아지면서, 중국인민지원군 출신의 중국인들에게 여권발급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친척 찾기에 바빴다. 중국에 있는 친척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또한 그들은 쉽게 중국에 있는 친척을 찾지 못해서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더러는 가짜 친척을 꾸며서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함.

- 정확한 통계는 여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1960년대 북한에는 화교 약 10만 명이 거주했다고 추정
  - “특히 이들은 북한당국의 무상교육, 무상배급 등 선전에 영향을 받아 그 중에는 중국에 건너가 가족을 설득하여 가족 단위로 북한에 넘어온 사례도 있었다. 마을이나 인민공사 단위의 이주도 있었다. 북한화교라고 해서 부모 양쪽 다 화교인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sup>14)</sup>
- 대약진이나 문화대혁명 등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혼란할 때 정치적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북한으로 이주함.
  - 문화대혁명 시기 북중관계 악화에 따라서 북한에서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음.
  - 북한에서 화교학교가 공격의 표적이 됨. 또한 북한당국은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배급을 중단함. 이에 맞서 화교들은 평양시 인민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벌임.
  - 문화대혁명시절 엔벤 등에서는 조선족을 겨냥한 김일성 간첩 색출 작전(조선특무)을 펼쳐 재중조선인을 탄압함. 중국 엔벤의 화룡시만 해도 이러한 죄목으로 재중조선인 2천명이 체포함.
- 문화대혁명 시기, 즉 북중갈등의 시기, 북한 주민은 화교를 적대시함.
  - 북한당국은 화교에 대한 배급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은 화교에 대한 물리적 폭력도 가함. 화교는 김일성주의에 대하여 평양 등에서 시위를 함.
  - 화교는 직장에 나가지 않고, 텃밭 등에서 채소 등을 길러 암시장에서 거래
    - “조선여자와 결혼한 화교자녀가 조선국적으로 전환하지만 군대를 갈 수 없어 입당 등 출세의 길이 막혀있다. 결혼을 꺼리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북한 국적을 강요하고 있어 무국적으로 사는 화교 자녀들도 많았다.”

- 문화대혁명 이후 북한거주 화교의 경제적 지위는 최하층
  - 배급대상자인 일반 주민, 협동농장의 농민 및 북한거주 화교 간에 거래를 함.
  - 1970년대 중반 일반 주민의 소비재 문제가 극심해지는 한편 외화상 점이 생기면서 화교의 위상 변화

#### 다.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귀국 배경 1959년-1962년

- 재일조선인귀국자를 중심으로 본 귀국 배경
  - 북한과는 어떠한 연고도 없는 재일조선인이 귀국하게 된 동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 요인이 작용함.
  - 당시 일본에서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멸시가 흑독. 빈곤의 대물림. 희망의 없는 패전 이후 일본
  - 고향인 한반도 남부의 정치적 혼란: 제주도의 4.3 항쟁, 이승만 독재 정권, 박정희 군사쿠데타와 이들 정권의 해외동포에 방기. 따라서 재일조선인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남한에 관하여 좋지 못한 이미 지 형성
  - 북한당국은 재일조선인에게 교통편뿐만 아니라 입국비용까지 부담 해 조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전선동활동을 하였음. 북한을 평등한 국가, 노동자의 국가로 선전해 일본에서 차별 받는 재일조선인의 마음을 동요시킴.
  - 한일국교정상화 이전 대부분 남한에 연고지를 둔 재일조선인은 고향방문을 하고 싶어도 고향에 돌아갈 방법은 밀수선 밖에 없었음. 더구나 이 밀수선을 타고 남한을 방문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 시모노세키(下関) 오오무라(大村)수용소로 강제 연행함.
  - 당시 재일조선인에게는 남북이 분단되었다는 인식이 부족. 이들의 아이덴티티는 (하나의) 조선. 따라서 북한에 가면 당연히 남한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고 착각함.
  - 가족이나 친척 중에 열렬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활동가가 있거나 일본공산당의 당원, 조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수임.
  - ‘지상낙원’이라는 조총련의 선전에는 북한에 갔다가 일본에 다시 오고 싶으면 3년 안에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에 속음. 따라서 온천이나 해외여행을 가는 것과 같이 가볍게 생각하고 가방만 하나 가지고 건너간 자도 많았음.
  - 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러 더 이상 일본에 살 수 없게 된 경우도 있었음.<sup>15)</sup>

**북한과는 어떠한 연고도  
없는 재일조선인이  
북한으로 귀국하게 된  
동기는 다양하고 복합적  
요인이 있음**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삶은 북한주민에 비해 음식문화를 비롯한 생활양식, 습관,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해 의식적으로 북한주민과 스스로 격리한 점과 북한주민의 타자에 대한 배타성이 혼재함**

- 재일조선인이 북한으로 건너가게 된 동기는 일본에서 차별과 빈곤으로 생을 마감할 바에야 일본에서 익힌 기술과 지식을 발휘하여 조금이라도 조국건설에 힘이 되고자, 또는 고령자의 경우 조국에 뼈를 묻고자 하는 바람이 강했음.
- 일본인 처의 경우 자식들을 위해 일본에 있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조선인 남편을 따라 갈수밖에 없었음.
-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조선인(일본인배우자 포함)은 북송사업의 초기단계인 1960년과 1961년에 가장 많음.
- 김정은의 모친, 고영희 일가도 귀국

#### **라.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삶: 북한주민과의 상호배타적 관계**

- 재일조선인 귀국자에게 비친 북한
  - 만경봉호를 타고 도착한 원산, 청진 등은 일본과 비교하여 매우 낙후하여 충격
  - 북한으로 귀국 후 속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음.
  - 재일조선인은 일본에서 하층이 많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숙련공이 많았음. 따라서 도시 배치가 많음.
  -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귀국자는 북한에서도 이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폐쇄적 집단을 형성함. 결혼도 재일조선인 귀국자끼리 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귀국자 문화: 귀국자는 북한주민에 비해 음식 문화를 비롯한 생활양식, 습관,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해 의식적으로 북한주민과 스스로 격리
  - 귀국자가 북한주민을 업신여겨 부르는 은어 ‘켄짱(原チヤン)’ 또는 ‘아파치’라고 부름.<sup>16)</sup> ‘켄짱’이란 원래 원주민의 첫 글자 ‘원’의 일본어 발음 ‘켄’과 명사에 붙여 친근함을 나타내는 일본어 ‘짱’의 합성어를 만들.
  - 북한사회밖에 모르는 북한주민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귀국자 스스로 북한주민과의 교류를 거부했으며 북한사회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노력함.
- 북한주민의 타자에 대한 배타성
  - 북한주민은 일본에서 온 귀국자를 ‘째포(在胞)’라 불러 뿌리 없는 존재라고 멸시

- 귀국자에 대한 열등감과 부러움, 질투, 미움의 감정이 동시에 혼재함.
- “일본에서 온 귀국자는 예의 바르고 정직한 반면 깍쟁이 같은 이미지가 있다. 머리 쓰는 것도 문화도 우리와 다르다. 생활수준도 높다. 밥도 조금씩 해 먹고 영양 많고 좋은 것만 해먹는다. 귀국자는 일하지 않고도 제일친척의 도움으로 북한주민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행복한 삶을 보낸다. 솔직히 부러웠다. 머저리도 돈 많은 귀국자면 우리러보았다.” “귀국자의 물건은 북한주민의 물욕을 자극해 귀국자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반드시 무언가를 훔치게 했다. 한편 북한에는 이러한 행위를 고소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모두가 평등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사회주의의 이념이며 많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북한주민은 귀국자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비도덕적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북한주민과 귀국자의 거리를 더욱더 넓혔다.”<sup>17)</sup>

○ 북한 당정의 제도적·비제도적 차별제도

- 북한은 계급계층 사회임. 귀국자는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차별과 적대의 대상
- “귀국사업의 초기단계에는 북한주민이 귀국자를 이국에서 고생하고 왔다면 따뜻하게 맞이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밀고자로 돌변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고 한다.”
- “그 배후에는 귀국자를 감시대상자로 규정한 북한의 제도가 있다. 실제로 1968년부터 10년간 귀국자를 숙청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 시기에 주변에서 체포되어 어딘가 끌려 가 죽은 귀국자는 수도 없이 많았다. 항상 일본을 적으로 가르치는 반일역사교육 때문에 귀국자는 적의 나라에서 온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sup>18)</sup>

○ 재일조선인 귀국자는 북한에서 소수자로서 배타적인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함.<sup>19)</sup>

- 북한 정부의 강제력에 의하여 귀국자도 직장에 나가야 하며 학교도 다녀야 했음. 그러므로 귀국자들은 북한의 원주민들과 일정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음. 더욱이 귀국자 대부분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 분야를 제외하고 엘리트로서 도시에 거주함.
- 재일조선인 소수이면서도 자본력과 소비 문화를 통하여 모든 것이 부족한 도시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방울 떨어뜨리면 색깔이 변하는 원리라도 같다.”<sup>20)</sup>

**북한은 계급계층 사회로서  
귀국자는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차별과  
적대의 대상이었고  
소수자로서 배타적인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함**

재일조선인 귀국자와  
동유럽 귀국 동포의  
정보, 문화와 사치품은  
북한 주민의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외국에 대한 향수를  
채워줌

#### 4. 소수자로서 귀국자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역할

##### 가. 재일조선인 귀국자와 친척원조

-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우월한 문화, 경제적 역량
  - 북한당국은 귀국자가 소유한 사유재산 처리방식의 일환으로 편의봉사사업소에 수매상점을 설치하고 귀국자 물품을 수매함. 이곳은 일종의 프리마켓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영상점과 다를 바 없어 이곳을 찾는 귀국자는 거의 없었음.<sup>21)</sup>
  - 북한 당국은 재일조선인의 사유재산을 인정
  - 초기에 재일조선인은 노동을 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북한 주민에게 매매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림.
  - 귀국자와 북한주민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갈등관계임.
  -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체제에서 재일조선인의 사유재산은 중요한 암거래 물품이 되어,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음.
  - 귀국자와 함께 유입된 자본주의적 요소가 북한 주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고, 북한 암시장의 생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sup>22)</sup>
  - “가난뱅이들이 귀국해 온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이들은 귀국 시 시계, 옷, 장화, 고급우산, 자전거, 가구 등 많은 살림살이를 가져왔다. 소비재가 극도로 부족한 북한에서 이것은 곧 화폐와도 같았다. 예를 들면 얇은 스카프 한 장이면 암시장에서 달걀 1백 개를 살 수 있었고, 손목시계 하나면 반년 정도는 넉넉히 살 수 있었다. 당시 노동자 한 달 로임(임금)이 30원 인데, 소련제 시계는 1백 원으로 암시장에서 쌀 70kg은 거뜰히 살 수 있었다. 한편 일제 세이코 시계는 4~6백 원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분과시의 수단으로 애용되었다.”<sup>23)</sup>
- 재일조선인 귀국자와 동유럽 귀국 동포의 정보, 문화와 사치품은 북한 주민의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외국에 대한 향수를 채워줌.
  - “1962년 북송 당시 북한에서는 비가와도 아무도 우산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 젖은 채로 걸어갈 뿐이었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 장화를 팔려고 내놓으면 모두들 난리가 났다.”<sup>24)</sup>
  - “우리 아버지는 1951년도 12살 때 체스코(구 체코슬로바키아)에 유학을 갔다가 1961년도에 귀국하였다. 그러나 전쟁고아출신은 아니다. 아버지 큰누님이 당시 김일성 최고사령부 서기라는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동생 다섯을 몽고, 러시아, 중국 등 (고아라는 명목으로)

외국에 보낼 수 있었다. 할머니, 아버지 말에 따르면 사회주의 조약 체결에 의해 전쟁고아들을 외국에 보내기로 했으나 사실 상층부 자녀들을 다 보냈다. 귀국 시 아버지는 로그계산자, TV, 손목시계, 사진기 등을 가지고 왔는데 북한에서는 이러한 물자가 최고급 상품이였다.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면 거리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만 바라보았다고 한다.”<sup>25)</sup>

- 북한주민들은 계급을 불문하고 누구든 귀국자가 소지한 외국 물건을 부러워하였으며,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수요가 있었음.
    - “일본에서 온 귀국자가 가장 부자였다. 나는 직업상 손님을 많이 상대해야 하므로 주로 일본에서 온 귀국자 옷을 사 입었다. 당시 노동자 월급으로는 암시장에서 쌀 1kg밖에 살 수 없었다. 한편 귀국자가 소유한 중고바지는 한 벌에 쌀 10kg을, 점퍼 1벌은 쌀 20kg을 쥐어 겨우 살 수 있었다. 이것도 아무나 못 산다. 귀국자와 상당한 친분이 있어야만 살 수 있었다. 이런 나를 동료들은 시기했다.”<sup>26)</sup>
  - 북한주민은 관혼상제에 대비하여 배급받은 쌀을 조금씩 모아 북한주민 간에 쌀계(契)를 조직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마련한 목돈으로 옷과 같은 귀국자의 사치품을 구입함.
    - 귀국자는 귀국 시 가져온 재산과 해외의 가족과 친척이 보내주는 물품을 이용하여 막대한 불로소득을 창출함.
    - 사회주의 개조 하에 개인축재를 할 수 있는 귀국자 중에는 노동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한 당은 이러한 재일조선인 귀국자 자산가들을 특별 대우함.<sup>27)</sup>
- 귀국자는 북한에 비사회주의적 ‘소비 문화’를 확산시킴.
- 비사회주의적 소비 문화는 북한의 핵심계층에서 일반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 영향
  - “귀국자는 일하지 않고도 해외친척의 도움으로 현지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물욕을 자극하여 귀국자 집을 방문할 때마다 반드시 무언가 훔치게 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관례와는 달리 귀국자는 북한주민이 집에 놀러 와도 잘 들여보내지 않았다. 또한 북한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부유한 귀국자 집에서는 기업소가 직접 파견한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썼다.”<sup>28)</sup>
  - “귀국자는 대부분 숙련공이다. 따라서 매일 밤 노동의 피로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모여 맥주도 마셔야 하고 저녁에는 후로(목욕탕)에도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비사회주의적 소비문화는  
북한의 핵심계층에서  
일반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 영향을 줌**

**국가와 당의 입장에서 보면, 귀국자의 자본은 환영할 요소지만 소비 문화는 경계 대상임**

들어가야 한다. 매일 밤 귀국자 집에서는 불고기 파티가 벌어진다. 일본 잡지도 가져와 돌려보고는 의상, 헤어스타일 등 모두 일본 것을 따라 한다.”

- “북은 닫혀있는 사회다. 귀국자의 경우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일본에서 편지며 짐이 오니 주변사람들이 보게 된다. 따라서 귀국자의 삶은 북한주민에게 외부를 바라보는 창이 된다. 무엇보다 직접 눈에 보이는 헤어스타일이나 복장을 따라 했다. 지금 북에서 웬만한 패션 감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남한 사람보다 더 세련되게 입는다.”<sup>29)</sup>
- “일본친척이 중고 자동차를 보내오면 차 속에는 엔화, 현 잡지, 가요테이프 등도 함께 달려온다. 보위부가 세관검사를 할 때 이러한 것을 발견하면 무조건 소각해야 하지만 아까워서 중간에 빼들려 친구들과 몰래 돌려본다. 잡지 속에 소개된 유럽 여행이나 화장품광고를 보면 머릿속에서 쉽게 잊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연히 북이 외부세계와 비교가 되고 잡지는 결국 암시장으로 유통시킨다.”<sup>30)</sup>

○ 국가와 당의 입장에서 보면, 귀국자의 자본은 환영할 요소지만 소비 문화는 경계 대상

- 사회주의적 개조이후 북한은 해외동포 귀국사업에 따라서 자본과 더불어 비사회주의적 소비 문화가 유입되는 딜레마를 안게 되었음.
- 실제로 귀국자의 비사회주의적 소비 문화가 문제가 되어, 북한당국은 1970년대 귀국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기도 함. 이후 북한당국은 조총련에 귀국자가 아닌 돈만을 송금하라고 독려함.
- 재일조선인 귀국자들은 일본으로부터의 송금에 의존하여 사치스런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 재일조선인 귀국자는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 몰락하기 시작하여,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인 다방면에서 몰락하였음. 북한 사회에서 생존력이 약한 재일조선인 귀국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난 시기에 생존을 위한 대처가 미숙했음.
-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이후 해외 문물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류가 북한 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됨.
- 2000년대 초반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로 입지가 더욱 줄어들음.
- 현재는 비참한 삶을 향유

-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탈북과 일본으로 귀국
  - 대부분 일본에 귀국한 경우 친척 등의 외면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
  - 원국적이 일본국적인 경우 일본국적 부여
  - 원국적이 재일조선인인 경우, 무국적으로 법적 보호가 미흡함.
  - 재일조선인 국적 자녀의 경우, 무국적 부여 후 5년 후 일본국적 부여
  - 일부 탈북한 재일조선인 귀국자는 일본정착이 어려워서, 정착금을 주는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

**나.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연고자의 부상**

- 중국연고자로는 재중조선인 귀국자, 조선족, 그리고 화교가 있음.
  - 1982년 북·중 양국은 북한 또는 중국에 친척이 있는 연고가정(緣故家庭)에 한하여 접경지대의 ‘민간왕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함.
  - 이때부터 연고가정은 북·중 접경지대에 한하여 비자가 아닌 통행증만으로 일정수속을 거쳐 공식적으로 친척집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한차례 방문할 때마다 최대 1달 정도 체류할 수 있도록 함.<sup>31)</sup>
  - 이러한 제도적 조치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재중조선인 및 중국 연고자의 상당수가 중국과 북한을 오갔음.<sup>32)</sup>
- 중국연고자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번성함.
  - 1984년 중국 국무원이 동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식으로 ‘국경소액무역잠정관리방법’(国境小額貿易暫定管理方法)을 발표함.
  - 이때부터 중국친척들이 북한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또는 중국연고자가 중국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통행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가 쇄도함.
  - 1980년대 중반이후 북한에 장사하러 오는 재중조선인의 수가 급증함.
  - 이들은 점차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서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도소매상이 되었으며 결국 남양, 회령, 무산, 혜산 신의주 등 북한의 주요 국경인접 군·읍들에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인 전용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함.
  - 중국 삼합(三合)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회령시장의 경우 한때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북한의 홍콩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번성함.
- 재중조선인 사이에 ‘북한장사 붐’이 일어나 장사목적의 친척방문사례가 급증함.
  - 1990년대 말까지 중국 동북 지방에서 사용하는 일본산 제품이 이들을 통해 유입되었을 정도로 북·중 접경무역에서 이들의 경제적 역할은 중요했음.<sup>33)</sup>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연고자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번성하였고 재중조선인 사이에 ‘북한장사 붐’이 일어나 장사목적의 친척방문사례가 급증함*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화교들은 북중 국경접경  
지대로 이주하여,  
북중교역을 담당하였고,  
화교의 경제적, 사회  
문화적 지위가 상승함**

- 이들을 매개로 1980년대 이미 중국의 동북부와 북한,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동서무역통로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1990년대 북한에서 배급제가 중단된 시기 북·중 접경무역은 탄력을 받음.
-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중국 상품이 북한시장으로 대량 유입됨과 함께 북한화교나 중국에 연고를 둔 북한주민(이하, 해외연고자)의 경제적 지위가 급부상함.
  -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이 사회문화적 약진으로 해외와 교류하는 북한 주민이 증가함.
  - 재중조선인 귀국자 및 화교는 중국정부의 보호아래 북한 주민보다 비교적 우월한 입장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함.

#### **다. 개혁개방 이후 화교의 경제력 부상**

-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화교들은 북중 국경접경지대로 이주하여, 북중교역을 담당
  - 문화대혁명 이후, 북한 당국은 화교에 대한 정치적 제재를 중단
  -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화교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위 상승
  - 우방국 국민이라는 특수신분을 활용하여 상업, 농업 등으로 부를 축적. 1980년대 초부터 단독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소유
  - 대도시와 국경지역의 화교의 부의 축적에 따라서 북한 주민과 새로운 갈등 요소
-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화교는 우방국의 국민으로써 북한주민이나 귀국자와는 달리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 중국과의 왕래도 비교적 자유로웠음.
  - 거주나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제약을 덜 받았으며 생활총화의 대상에서도 제외. 또한 화교들은 직장에 얽매는 것을 싫어하여 직장에서 주는 배급보다는 주로 장사에 의존하면서 생활을 함.
  - “1960년대 만해도 북한이 중국보다 생활수준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 북한에 오고 싶어 하는 화교가 많았다. 화교들은 북한에서 직업을 갖지 않아도 통제대상이 아니었으며 당시만 해도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중국과 북한을 왕래하며 장사에 의존하면서 생활하였다.”<sup>34)</sup>
- 화교들은 우방국 출신의 외국인이라는 특수신분을 이용하여 중국과의 무역거래도 하고, 상업을 목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함.

- 화교들은 직장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농촌에 살기도 거부하여 주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생계유지수단으로 일본에서 온 귀국자를 겨냥해 마나 우영 등 값비싼 야채를 텃밭에서 재배하여 생계를 유지
  - 그 대가로 일본 제품을 받아 중국 등에서 판매하고, 값싼 중국 제품을 북한으로 들여와 장마당에 팔아 생계를 보조함.
-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 특히 2008년 이후 북중관계가 밀착되면서, 화교의 경제적 지위는 북한과 중국에서 급부상

**라. 고영희의 삶과 김정은의 성장과정**

-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전형적인 사례에 대한 요약
  - 95.9%는 남조선 출신. 특히 제주출신의 오사카 거주. 4.3 이후 제주 사람이 급증
  - 약 80%이상이 1959년에서 1962년 북한으로 입북
  - 북한에 입북 후에 북한사회에 매우 실망
  - 정치적 동요계층으로 차별의 대상이며 정치적 출세는 봉쇄되었음.
  - 사회·경제적으로 우월. 해외 문화에 능통한 교양이 있고, 일본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특수한 존재. 외화상점에서 맥주 등의 사치품을 구입하고, 화교나 농민들로부터 배급에서 나오지 않는 야채, 곡물 등을 소비하는 계층
  - 귀국자들 중 숙련공들은 도시에 배치되었으며, 출근하지 않고 사유 재산을 소비하며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음.
  - 자녀교육에 열성적이어서 자녀들이 성실하고 예능 및 외국어 교육을 받음. 따라서 정치 분야를 제외하고 문화·예술계, 학계 등의 진출이 많음.
  - 1989년 이후 북한경제의 쇠락과 외국문물이 유입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기 시작
  - 고난의 행군 이후 몰락, 그리고 일본의 대북 제재로 최하층으로 전락
- 김정은의 모친 고영희 -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전형적인 사례
  - 외조부는 고경택이며 제주출신으로 1929년 오사카로 이주
  - 1962년 고경택 일가 4인은 북한으로 이주
  - 1952년 일본 오사카시 쓰루하시(코리아타운) 출생
- 고영희
  - 1971년 만수대예술단 무용가

*2008년 이후 북중관계가 밀착되면서, 화교의 경제적 지위는 북한과 중국에서 급부상함*

**인구학적으로 북한  
내의 소수자인 귀국자는  
북한의 사회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

- 1976년부터 김정일과 결혼생활
  - 1980년 김정철 출생
  - 1983년 1월 8일 김정은 출생
  - 2000년 초반, '평양의 어머니,' '존경하는 어머니'로 선전
  - 2004년 프랑스 파리에서 암투병중 사망
  - 2012년 5월, 85분짜리 기록영화 '위대한 선군 조선의 어머니'가 공개
- 재일조선인 귀국자 자녀로서의 김정은의 성장과정
- 어린 시절 후계자 선정과정의 유리한 점: 첫째 형 김정남은 성혜림의 아들로 배제. 성혜림은 북한의 유명 배우로 시아버지 이기영과 TV등에서 유일사상에 대한 선전활동 등으로 모든 인민들이 아는 유명배우. 1996년 큰이모 성혜랑의 서방으로 망명하였음. 둘째 형 김정철은 사춘기 호르몬 이상으로 배제
  - 다른 재일조선인 귀국자 자녀와 마찬가지로 해외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음.
  - 1996년 여름부터 2001년 1월까지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
  - 2003년 김정일의 가벼운 뇌졸중 후 11월 후계자로 최초 거론
  - 2008년 8월 김정일의 뇌졸중 후, 후계자 결정
  - 2009년 후계자 승계작업의 본격화

## 5. 종합평가

- 귀국자의 역사로 본 북한사회
- 북한 지도부, 김일성 가문 및 성혜림, 고영희 가문 등도 귀국자 및 해외연고자 출신. 현재 귀국자 후손이 활발히 활약하는 국가라는 측면도 있음.
  - 김정은 제1위원장도 귀국자 자녀 출신이라는 측면은 북한 사회를 관찰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도 있음.
  - 태어날 때부터 해외문화에 익숙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서방과의 소통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재중, 재일조선인과 화교는 동요계층으로 차별대상이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
- 인구학적으로 북한 내의 소수자인 귀국자는 북한의 사회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
- 인구학적으로 한국전쟁 시기 북한 인구 급감

- 1953~1958년 한국전쟁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잔류는 사회에 막대한 영향
  - 1959년부터 1964년 약 35만 명에 이르는 재일·재중·재소·재동유럽 출신 귀국자는 북한의 사회문화와 경제에 지대한 영향
  - 1960년대 중반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학령인구가 되면서 북한 사회는 재편
  - 중국의 반우파투쟁과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으로부터 조선족 및 한족의 이주
  -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접경지역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연고자들을 중심으로 교류를 함.
  - 1980년 후반,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주민의 중국과 한국으로 이주, 그리고 중국인(화교)의 북한 시장 진출함.
- 북한정부와 당은 주민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냉전 시기조차 이상의 귀국자 및 해외교류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은 외국세계와 교류하고 이해: 통제라는 모기장을 쳤지만, 민중은 숨구멍을 막지는 못했음.
- 중하층부에서도 중국의 개혁개방, 북한의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주민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시장의존적 삶을 영위, 특히 2000년대 이후 주민에 대한 통제와 이완이 반복되면서 주민 스스로의 삶에 대한 개척의지가 상승하고 있음.
- 중국의 개혁개방,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화교 및 재중귀국자들은 중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북한과의 (공식, 비공식)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함.
- 중국연고자 및 화교는 심리적으로 북한에 상당한 적대감이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 북중 우호의 한 축으로 활동하고 있음.
  - 북중무역 중에서 화교 및 중국연고자에 의한 접경무역은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의 식량 위기와 2006년과 2009년 핵실험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를 돌파하는 하나의 축으로 작용함.
- 재중연고자의 운명과 반대로 재일조선인 귀국자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인 다방면에서 몰락하게 됨.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이후 해외 문물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한류가 북한 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됨.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대북 경제 제재로 입지가 더욱 좁아짐.

**중국의 개혁개방,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화교 및 재중귀국자들은  
중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북한과의(공식, 비공식)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함**

**고난의 행군 이후  
저출산과 더불어 교육의  
기회를 얻는 청년층이  
줄어들어서 숙련공이  
매우 부족하고, 중국에  
의존적인 소비계층의  
증가와 배급중단에  
따른 빈곤층 증가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 이탈주민은 현재 200여명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경과 오사카 주변을 거점으로 이들 대부분이 무국적 또는 조선국적으로 일본정부의 생활보호와 시민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생활<sup>35)</sup>
  - 김정은 지도체제와 아베 정권의 북일 협상의 재개 여부를 결정짓는 시험대중 하나는 남북자(요도호 문제 포함)와 더불어 재일조선인 귀국자 처(부인)의 고향방문 문제
- 고난의 행군 이후 인구구성의 변화와 북한 사회의 과제
- 평양 및 접경지대 주민의 자본주의화: 한류와 소비 문화에 물든 청년층의 증가
  - 고난의 행군 이후 저출산과 더불어 교육의 기회를 얻는 청년층이 줄어들어서 숙련공이 매우 부족함. 북한 경제의 회복 국면이 도래해도 숙련공 부족에 직면할 위험이 높음.
  - 2008년 이후 북한경제가 달러블록에서 위엔화 블록으로 급속히 편입되고 있음: 중국연고자 및 화교의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상승
  - 지역 및 계층 격차의 증가
  - 중국에 의존적인 소비계층의 증가와 배급중단에 따른 빈곤층 증가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체제 내에서 경제사회적 다원화가 상당정도 진행되고 있음.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박혜연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 저자 약력

---

### ■ 박종철

現 경상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 일본 토호쿠대학에서 법학연구과 정치학 석사(2002) 및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정치학 박사(2007) 학위를 취득하였음. 주요 연구 분야로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북중관계임. 주요 연구논문으로는 “중국의 대북경제정책과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7집 제1호(2012.3); “한국전쟁 원인으로 중국의 역할과 전쟁개입목적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통권 제56호(2012.11) 등임. 공저서로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과 북중관계.” 『한반도분쟁과 중국의 개입』 한국정치외교사총서 6(선인출판사, 2012.4) 등이 있음.

## 주석

\* 이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 정은이 박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1) 같은 귀국자라도 북한사람들은 소련과 중국에서 오면 ‘해외연고자’라 칭하였으며 이들을 각각 ‘재소연고자’, ‘중국연고자’라 부름.
- 2) 구체적인 철군의 원인과 과정은 다음을 참조할 것. 박종철,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과 북중관계」, 『한반도 분쟁과 중국의 개입』(선인, 2012).
- 3) 정은이,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삶을 통해서 본 북한체제의 재조명: 재일탈북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2권 3호, 2009.
- 4) 북한에서는 이들이 본인의 의지로 조국으로 돌아왔다고 간주해 ‘귀국자’라 부른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들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여 ‘귀환자’라 부른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상낙원이라는 북한당국의 허위선전에 속아 건너갔다 하여 ‘북송동포’라 부른다. 1959년 12월 16일 귀국 사업이 개시된 때로부터 196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89차에 걸쳐 1만 9천 세대의 7만 5천 57명의 재일동포들이 귀국하였다. 즉 귀국자의 80% 이상이 이 시기에 건너간 것이다.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2), 337쪽.
- 5) 编写组编, 『中朝关系通史』(吉林人民出版社, 1989), 840쪽.
- 6) 북한이탈주민 T2씨의 증언.
- 7) Morris-Suzuki, Tessa, 『北朝鮮へのエクソダス』(東京: 朝日新聞社, 2007), 221쪽.
- 8)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중심, 2000), 202쪽.
- 9) 「外交部关于组织中国籍朝鲜族人民和动员朝鲜侨民去朝参加建设工作的综合报告」(1959년 12월 10일).
- 10) Morris-Suzuki, Tessa, 『北朝鮮へのエクソダス』(東京: 朝日新聞社, 2007), 257-258쪽.
- 11) 『조선지리지전서』(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9).
- 12)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반우파투쟁 시기, 국가경제가 매우 열악하였는데, 김일성은 중국에 원조를 제공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선족에 대하여 선동을 했다고 함. 북한 측은 국경에 귀국 접수소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입북한 사람을 받았다고 함. 당시 북한사람들은 북중간에 국경개념이 없었으므로, 간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동북집’이라고 불렀음. 당시 반우파투쟁은 1957년 5월 15일 마오쩌둥에 의하여 정풍운동에서 반우파투쟁으로 급변하였는데, 우파로 몰린 사람은 55만 2,877명이었고, 특히 연변은 김일성주의에 대한 선동 때문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고 함. 특히 재중조선인에 대한 연변 등에서의 반우파투쟁은 대대적이었다고 함.
- 13) 북한이탈주민 R6의 증언.
- 14) 북한이탈주민 R8의 증언.
- 15) 정은이,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삶을 통해서 본 북한체제의 재조명: 재일탈북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2권 3호, 2009.
- 16) 귀국자가 북한주민을 원주민이라 부른 것은 청진항에 도착한 순간 받은 첫인상에서 비롯되었다. 마중 나온 북한주민의 모습이 귀국자 눈에는 마치 인디언과 같이 보였다. 피부는 까맣고 일본에서 본 적도 없는 초라한 ‘스프’란 기지로 만든 더러

운 옷을 입고 있었다. 특히 여자들 머리모양이 인디언처럼 양 갈래로 따고 있었다. 후에 이들의 피부가 왜 그렇게 까만지 알았다. 바로 모든 주민이 천리마운동 등의 대중운동에 상시적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이었다. 재일탈북자 H씨의 증언.

- 17) 북한이탈주민 Q7의 증언.
- 18) “조선사 수업에서 일본에 대해 말해질 때가 가장 싫었다. 선생님이 식민지시대에 일본이 조선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했는지 말할 때 학우들의 시선은 일본에서 온 귀국자에게 쏠렸다. 그러면 내 얼굴이 어느새 빨강게 달아올랐다.” 梁春美, 『梁春美 회고록』, 비출판자료.
- 19) 귀국자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은이,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삶을 통해서 본 북한체제의 재조명: 재일탈북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2권 3호, 2009, 208-209쪽.
- 20) 북한이탈주민 T1의 증언.
- 21) 북한이탈주민 A의 증언.
- 22) 1959년부터 시작된 재일동포의 북송사업은 북한 암시장을 질적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음. 재일동포 북송사업이전 북한시장에서는 중국, 소련의 경공업 제품 밖에 없었으나 그 이후에는 갑자기 일본 상품들이 유입되었음.
- 23) 재일조선인 탈북자 H의 증언.
- 24) 梁春美, 『春美回顧錄』, 미출판자료.
- 25) 북한이탈주민 R6의 증언.
- 26) 북한이탈주민 T2의 증언.
- 27) 귀국자가 지닌 물건이 암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발휘하는 지에 관해서는 친척방문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된 재일조선인의 수기를 참조할 것. 金元祚, 『凍土の共和国』(東京: 亜紀書房, 1984), 269-271쪽.
- 28) 재일조선인 귀국자 이탈주민 Q3의 증언.
- 29) 재일조선인 귀국자 이탈주민 Q7의 증언.
- 30) 재일조선인 귀국자 이탈주민 T의 증언.
- 31) 북한이탈주민 S5의 증언.
- 32) 북한이탈주민과 재중조선인에 대한 인터뷰조사결과, 1980년대 중반이후 중국에 연고가 있는 탈북자 대부분 1차례 이상 중국친척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음. 동시에 이들은 중국친척들을 또는 중국인과 가짜 친척관계를 만들어 북한으로 한두 차례 이상 불러들였음.
- 33) 북한이탈주민 S8의 증언.
- 34) 화교 R1의 증언
- 35) 일본정부는 탈북자 중에서 일본국적소지자를 포함하여 과거에 일본에 살았던 재일조선인과 그 가족에 한하여 일본 입국을 허용하고 있음. 바꿔 말하면 일본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일본에 정주자격을 가진 재일한국인·조선인과 같은 자격으로 살고 있는 것임(민단 U1씨의 증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